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1일 목요일 음 6월 23일(11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8℃, 낮 최고기온은 29-31℃로 예상된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외출 시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3 columns: Time (오전, 오후), Humidity (강수 확률), and Location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Shows 60% probability of rain.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달뜨기, 달지기) and Temperature (기온). Shows temperatures ranging from 18.17 to 23.4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맑음, 흐리고 비) with temperatures (25/30℃, 25/32℃).

Table with 2 columns: Air Quality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and Status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미 10살 소녀 '원정 낙태' 법정 다툼으로

의사, 주 법무장관 상대 소송

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10살 소녀의 낙태를 도운 의사가 이를 '범죄'라고 지목한 주(州) 법무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낙태권 집회서 발언하는 버나드 의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의 변호인은 이날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버나드는 로키타 법무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무화하고 있다. WP는 로키타 법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버나드가 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버나드가 지역 언론에 오하이오주에서 온 10살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시술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오하이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까지 이동한 것이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제주는 아름다운 보물섬이다. 한라산과 꽃자왈, 오름과 동굴, 해안을 감싼 절경 등은 제주에 나고 살며 보아도 늘 아름답다. 특히 제주자연이 유네스코에 인증되면서 연간 150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 관광지 됐다. 그런 가운데 근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분별한 관광 개발정책으로 제주의 자연은 훼손돼 왔다. 산업화와 같은 가난을 빙자한 시대적 배경을 핑계 삼지 않더라도, 자연 보존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책 판단에 아쉬움이 크다.

송악산 자연경관의 보존을 생각하면서

지금껏 제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은 1974년 함덕해수욕장 일대 유원지 지정을 시작으로 22개 사업장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마무리된 사업은 (주)SNF차이타데의 데티밸리 개발사업이 유일하고, 21개 사업은 여전히 개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미진한 사업장의 불필요사업을 제척하거나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을 진단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의 경우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 선인'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문화재 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사업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그러던 중 다음달 8월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송악산과 송악산 유원지는 주변의 산방산, 웅머리해안 등과 더불어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자연경관이 뛰어나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크므로 과정의 시비를 불문하고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금 일련의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을 보면, 보존에 대한 가치판단이 분명치 않아 행정의 일관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자연 체험파크 조성사업'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꽃자왈 훼손, 환경오염, 지역갈등 등 여러가지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는 자연과 환경의 절대 보존가치를 저버려서 안 될 곳이다.

제주의 자연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엄중 관리하고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도민의 생명줄 지하수 매장량 60%가 만들어지는 곳자왈은 송악산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관리를 위한 워킹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사유지 공유화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제주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무분별한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구조물, 경관을 사유화한 건물까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송악산 보존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화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게 제주의 미래요, 오염된 도정의 과제라 생각한다.

열린마당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대비하자!



강마로 서부소방서 함림119센터

라는 단어를 그렇게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책임감,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정성, 이것들이 다른 이름이 곧 청렴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공직자 개인의 일상 속에 늘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선 주무관에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찰, 소방관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청렴'을 견고히 하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내려야 한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이면 안된다.

119구급차는 아이스팩, 아이스조끼 등 온열환자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있고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하는 건강 수칙으로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이온 음료 마시기, 외출 시 헝클러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양산·모자로 햇볕 차단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휴식 취하기가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는 더 많은 온열환자 발생이 예상되지만 폭염 예방 3대 건강수칙과 대처방법을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 무더위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ll Products' (모든품종) and 'Gold Honey' (황금향) citrus varieties, listing various types and contact info for Seogwi Jeongmyo.

Advertisement for 'Gambul Moyuk' (감굴묘목) and 'Asahi 4, 5-year-old' (아스미 4, 5년생) citrus trees, listing prices and contact info for Seokpa Nongsan.

Advertisement for 'Gambul Moyuk' (감굴묘목) and 'Gambul Port Moyuk' (감굴포트묘목) citrus trees, listing prices and contact info for Nonghyup Hwasan.

Advertisement for 'Gambul Moyuk' (감굴묘목) citrus trees, listing various varieties and contact info for Minseong Jeongmyo.